

제주도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참여 동기에 대한 분석

진 윤 성¹⁾ · 김 승 곤²⁾

An Analysis on Participation Motivation in Cheju Junior - High School Sport Athletes

Jin, Yoon-Sung · Kim, Seung-Gon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seeks to analyze a motivation for sport participation in Cheju Junior and High school athletes as the multi-dimens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tudy, Cheju Junior and High school athletes in a group were set up, then reliability and validity on the basic of a preliminary survey and preceding documents were inspected, lastly, forty-two items of an index of Likret and made a collection of 662 students' share in all were composed.

This analytic research materials was used by the program of Spss/win statistics. And to know the important of motivation for sport participation, Descriptive analysis was used. Also to get an index of motivation for sport participation and validity of format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by Varimax was used. And to inspect an index of it's reliability, the value of item-total correlation and Cronbach's Alpha was solved. By means of the cause of background, to inspect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motivation for sport participation, evidence by inspection of Frequency analysis and One way-ANOVA was enforced and if necessary, even the way of Duncan Test afterward.

Through the way of research and the analysis of materials the above, and about the motivation for sport participation in Cheju Junior and High school athletes, it is necessary to conclude as follows.

1. The general trend of Participation Motivation in Cheju Junior - High School Sport Athletes

The sequence of motivation for sport participation reveals the followings. 1) Want to take exercise. 2) Taking exercise is better than studying. 3) Sustain their special ability and talent. 4) Want to become a good athlete. 5) Want to train a athlete's spirit and practice his perseverances. 6) Show an aptitude for athlete. 7) Owing to getting into ecstasies over a win. 8) To have their desire fulfilled, etc.

1) 제주중앙중학교 교사

2)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2. The compose of the caus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Sport Athletes

This is classified as six causes, namely achievement/status, physical strength/health, amusement/pleasure, poor progress of study/a special benefit, foppery, perceived competency, etc.

3. The distinction of sex of Participation Motivation Sport Athletes, the time to start sports, the difference between grade of Junior and High school and sporting events.

1) The distinction of sex of Participation Motivation Sport Athletes reveals the sequence of the followings achievement/status, amusement/pleasure, ability, feeling, physical strength/health and then boys more highly than girls.

2) The time to start sport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Sport Athletes reveals athletes which begins in Primary school more highly from amusement/pleasure, athletes which begins in Middle school more highly from poor progress of study/a special benefit.

3) The difference between grade of Junior and High school of Participation Motivation Sport Athletes reveals highly from achievement/status, amusement/pleasure, physical strength/health at Middle school, more highly poor progress of study/a special benefit, foppery at High school.

4) The sporting event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Sport Athletes reveals from feeling more highly individual game or group game than dual game, from achievement/status, amusement/pleasure, group games reveals more highly than individual game or dual game.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이 왜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며 또 지속하거나 그만두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스포츠 심리학 분야의 동기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관심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스포츠 참가 동기에 관한 주제는 스포츠 심리학 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육학과 스포츠 사회학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 다수는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이나 스포츠 참가의 내, 외적 동기 및 참가 과정에 관한 경험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스포츠 참가에 대한 연구 모형 혹은 개념적 틀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어린이나 청소년,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스포츠로의 동기화 된 행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선수의 개인적 요인 및 상황적 요인에 대한 체계 적이고 광범위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Alderman과 Wood(1976)는 425명의 청소년(11-14세)아이스하키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참가 동기를 조사한 결과 친화(Affiliation), 우월성 과시(Excellence), 스트레스 추구, 권력 (Power), 독립 (Independence), 성공(Success), 공격(Aggression)의 7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인들은 연령과 성 및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스포츠로의 동기화 된 행동이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의 상호 작용적 산물이라는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참가 동기를 너무 개인적인 욕구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상집단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참가 동기의 유형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한편 최근까지 청소년 선수들이 스포츠 참가 동기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 (Brodikin & Weiss, 1990 : Gould, Feltz & Weiss, 1985 : Klint & Weiss, 1987 : Lindner & Speak, 1995 : Morriss, Clayton, Power & Han 1995)은 Gill, Gross 및 Huddleston(1983)이 개발한 30문항의 스포츠 참가동기 질문지를 사용하여 참가 동기의 유형, 성 차, 연령차 및 비교 문화적 차이를 검증 하고자 시도했다. 실제로 Gill 등 (1983)의 연구는 스포츠 참가 동기와 관련된 최초의 체계적 연구로서 참가 동기 연구의 기본모형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Gill등은 7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스포츠 참가 동기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한 질문지를 개발하였으며 1138명(8-18세)의 질문지 반응을 요인 분석하여 성취/지위, 팀 지향성, 체력, 에너지배출, 상황적 요인, 기술 향상, 친화, 재미 등 8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성 차와 관련하여 남녀 학생 모두의 기술향상, 새로운 기술의 습득, 재미 도전, 체력을 주요 참가 요인으로 지적하여 전반적인 반응은 유사함을 전제하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 에 비하여 성취/지위 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한 점, 그리고 남자가 도전, 경쟁, 재미, 새로운 기술 습득의 순위로 중요도를 평가한 반면 여학생은 재미, 새로운 기술 습득, 체력, 도전 순위로 평가함을 들어 다소 성 차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Gill등의 결과는 추후 연구들에서 지지되어 졌는데 Gould, Feltz 및 Weiss(1987)는 365명의 청소년 수영 선수 (8-19세)를 대상으로 Gill등이 개발한 P M Q를 변형하여 스포츠 참가 동기를 조사한 결과, Gill 등의 결과와 동일한 참가 동기의 요인 구조를 발견하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체력, 우정, 재미를 보다 중요한 참가 동기로 평가함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Klint와 Weiss(1987) 역시 67명의 청소년 체조 선수를 대상으로 P M Q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동일한 참가동기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Brodikin과 Weiss(1990)는 100명의 수영선수를 대상으로 P M Q의 하위 요인 중 경쟁, 사회적 지위, 건강, 체력, 재미 등의 요인에서 연령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참가 동기의 연령차는 저 연령 선수 (8-10세) 들이 고 연령이 청소년 선수들에 비하여 원정에 따른 여행, 부모나 친구를 기쁘게 해주는 것, 운동 용구 사용의 재미, 성취/지위를 보다 중요한 참가동기로 평가한다는 Gould등의 연구에서 제시된바 있다.

청소년 스포츠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들은 성 차와 연령 차 뿐만 아니라 스포츠 프로그램의 형태에 따른 차이 및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국가간의 차이도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Klint와 Weiss(1987)는 우수 체조 선수와 레크리에이션으로 체조 종목에 참가한 학생간의 참가 동기를 비교한 결과, 우수 선수들은 유능성, 경험, 체력, 도전을 주요 동기로 평가한 반면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체조를 하는 학생들은 재미나 운동 용구의 사용을 주요 참가 동기로 평가함을 보고했다. 이러한 경향은 과외 체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의 90%가 재미를, 80%가 기술향상을, 그리고 56%가 체력적 이득을 중요한 동기로 평가함을 밝힌 Sapp와 Haubenstricker(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문화적 관점에서 유럽 청소년과 호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미의 연구결과와 비교를 시도한 연구 들은 참가동기의 유형은 비슷하나 빈도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Robertson(1981)은 1287명의 호주 남녀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참가 동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 (68.5%)이 재미나 기술학습과 같은 내적 보상을 위하여 스포츠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취/승리 요인을 13.8% 우정 파 친화 요인은 5.7%로 상당히 낮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상이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청소년 운동선수의 스포츠 참가동기는 일반적으로 재미 혹은 즐거움, 기술의 습득 및 향상, 체력 증진, 도전, 친화 등 내적 동기 요인이 강조되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하여 성공이나 지위 획득과 같은 보상을 얻으려는 경향도 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참가 동기의 유형 역시 개인 특성과 상황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연구들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이 단일 항목 또는 제한된 항목들을 기초로 제작됨에 따라 다양한 생각과 관점 그리고 경험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이 청소년 스포츠 참가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보

라고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동기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목록 내에서 잠재적인 동기 범주들을 얻기 위하여 스포츠 신체활동 및 여가연구문헌들에서 발췌한 항목들과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운동선수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하여 운동선수 스포츠 참가 동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성장훈, 김병준(1996)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표준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제주도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참여 동기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으며,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제주도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에 참여동기는 무엇인가?
- 2) 스포츠 참여 동기들은 어떤 요인들로 구성될 수 있는가?
- 3) 스포츠 참여 동기들은 성별, 운동 시작시기, 학교 급간.(중학교, 고등학교) 운동경기 종목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제주도에 중·고등학교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662명을 <표-1>과 같이 표집하였다.

<표-1> 표 집 인 원

성 별	학 교		계
	중	고	
남	238명	238	476명
여	89명	97	186명
계	327명	335	662명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참여 동기측정 도구는 예비 조사와 선행문헌(성장훈·김병준, 1996, 양명환, 1994)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질문문항은 청소년 스포츠 문항에 대한 고찰과 성장훈·김병준(1996)의 질적 분석에서 얻은 항목을 그리고 양명환(1984)의 신체 활동 참여 동기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문문항을 발췌하여 종합 수정하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최종적으로 42문항을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예비 조사는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여 선수 4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에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에 참여 하게된 동기3가지씩을 쓰도록 하였다. 제출된 383명의 동기요인들을 귀납적 내용 분석 절차를 거쳐 상위의 일반적인 주제들로 범주화된 85개의 원자료 주제가 <표-2>에 제시되어 있다.

제주도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참여 동기에 대한 분석 (진 윤 성·김 승 곤)

〈표-2〉 참여 동기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

원자료	제1차주제	제2차주제	제3차주제
재미가 있어서, 즐겁기 때문에 취미가 있어서 공부보다 운동이 좋아서/편해서 종목이 좋아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재미/즐거움	내적 요인
적성이 맞아서 소질이 있어서 신체 조건이 좋아서 운동신경이 좋아서 특기룰 살리기 위해 재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능성 지각	
건강해 지려고/몸이 허약해서 자기 몸의 방어/호신용 체중을 빼기 위해 힘을 기르기 위해/지구력, 근력 스피드를 기르기 위해 위기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편식을 하지 않기 위해	신체적 이득	건강, 체력	
근력과 끈기를 기르기 위해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려고 선후배 및 친구가 많아 생겨서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승리의 희열 짜릿한 전율	심리적 이득		
호기심 때문에 성취를 위해 선수생활의 경험 기록의 도전 보람이 있어서 운동 쪽의 일을 하고 싶어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운동으로 성공하기 위해) 대회에 출전하고 싶어서 상을 타려고		도전	
종목이 특이해서 운동 선수가 멋져 보여서 인기 있는 종목이라서 키가 커지지 때문에 남자다운 운동이라서 유니폼/운동장비 등이 좋아서		멋	
특정 종목 하나 갖기 위해서 운동부에 소속하고 싶어서 취미생활로 클럽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가시간을 소중히 보내기 위해		여가생활	

〈표-2〉 계속

원 자료	제1차 주제	제2차 주제	제3차 주제
부모님의 권유 교사/코치, 감독, 체육관사범의 권유 형제, 자매 및 친척들의 권유 선, 후배의 권유 친구의 권유 가제로 시켜서		주요 타자의 권유	
유명한(윙퐁한) 선수가 되려고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국의 선양을 위해 장래 희망이므로 돈을 벌기 위해 (보다 나은 삶)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회에 출전하고 싶어서	개인적 성취 및 사회적 성취	성취/지위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상을 타려고 승리의 기쁨 때문에 남보다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 경험		
공부에 자신 없어서/ 싫어서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떨어져서	학업 부진	학업부진/진학	외적 요인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대학교 진학 때문에 운동 선수를 직업으로 갖기 위해서	진 학		
학비를 면제받기 위해서 조건 대우가 좋아서 (등록금, 간식 대우 등)		경제적 부담	
T·V의 영향을 받아서 인기 있는 종목이므로 메스컴을 따는 선수가 되기 위해		메스컴의 영향	
내신 성적이 유리해서 수업을 적게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많을 특혜를 누려서		성적 특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목의 운동을 하다가 전환 다른 친구가 하니깐 따라서 승단을 하기 위하여 부모 또는 형제가 이 운동을 해서 그 영향으로 취미생활로	기타 요인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0년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사이에 이루어 졌다. 조사절차는 먼저 해당학교의 체육교사나 운동지도자와 전화 접촉을 통하여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협조해 준다는 동의를 얻은 후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질문지에 답하도록 하였고 조사가 끝난 뒤 지도교사가 일괄 수합한 것을 회수토록 하였다.

4. 자료처리

수정된 자료는 자료 정선 작용을 거쳐 662명의 최종자료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였다.

첫째, 스포츠 참여 동기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스포츠 참여 동기 척도의 요인구조와 구성 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 직교 회전에 의한 요인 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item-total correlation과 Cronbach's alpha값을 구하였다.

셋째 배경 변인에 의해서 스포츠 참여 동기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과 필요한 경우 Duncan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운동선수들의 참여 동기들의 중요도 분석결과

우선 스포츠 참여 동기 요인들에 따른 자료 분석에 앞서 42개의 참여 원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표-3>은 각 항목에 대한 결합 표집에 대한 중요도평균 평정치 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위를 살펴보면 “운동이 하고 싶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되었고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공부보다 운동이 좋아서” “특기 및 재능을 살리기 위하여”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하여” “근성과 끈기를 기르기 위하여” “적성이 맞아서” “승리의 기쁨 때문에” “장래의 희망이므로”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 원인 중 중요도가 낮은 순서로 볼 때 “강제로 시켜서”가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고 “친구의 권유로” “학비를 면제받기 위하여”, “운동 기구나 장비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수업을 적게 하기 위하여”, “선수들의 유니폼이 멋져 보여서”, “T.V등의 영향을 받아서”등의 순서로 낮게 평가하였다.

여기에서 참여 동기의 평균이 높은 순서로 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평균치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으며 순위가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대개의 경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가 동기 중 참여도가 낮은 순서로 볼 때에도, 순위는 조금차이가 있으나 강제로 시켜서, 다른 운동을 하다가 이 운동으로 전환, 친구의 권유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선수들의 유니폼이 멋있어서 등의 참여 동기는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친구 의 권유로, 학비를 면제받기 위하여 동기를 앞에 동기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동기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평가한 동기의 항목은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찾아서 (3.03 ± 1.12), 호기심 때문에(2.87 ± 1.10), 운동선수가 멋져 보여서(2.66 ± 1.14), 선생님(코치, 감독)이 권해서(2.46 ± 1.26), 친구의 권유로(2.08 ± 1.16)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 스포츠 참여 동기 문항의 중요도 평정 (성별에 대한 평균)

참 여 동 기	남자(N=476)	여자(N=186)	전체(N=662)
동기 1) 재미가 있어서	3.26±1.14	3.16±.97	3.24±1.10
동기10) 강제로 시켜서	1.67±.86	1.82±.97	1.71±.89
동기11) 다른운동을 하다가 이 운동으로 전환	2.07±1.27	1.88±1.16	2.02±1.24
동기12) 소질이 있어서	3.10±.97	2.81±.93	3.02±.97
동기14) 집중력을 기르기 위하여	3.05±1.08	2.78±1.11	2.97±1.09
동기15) 운동기구나 장비가 좋아서	2.08±.89	1.96±.84	2.04±.88
동기16) 취미생활을 위하여	2.82±1.06	2.72±1.09	2.79±1.07
동기17) 친구의 권유로	1.90±1.00	2.08±1.16	1.95±1.05
동기18)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2.17±1.10	1.84±.93	2.08±1.07
동기 2) 적성이 맞아서	3.34±1.00	3.12±.95	3.28±.99
동기20)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3.17±1.09	2.84±1.15	3.08±1.11
동기21) 공부보다 운동이 좋아서	3.54±1.13	3.11±1.19	3.42±1.16
동기22) 키가 크기 때문에	2.29±.96	2.12±.97	2.24±.97
동기23) 호기심 때문에	2.58±1.03	2.87±1.10	2.66±1.06
동기24) 유명선수가 되기 위하여	3.07±1.22	2.60±1.21	2.94±1.24
동기25) 장래의 희망이므로	3.20±1.24	2.71±1.20	3.06±1.25
동기26) 수업을 적게 하기 위하여	2.10±1.05	2.05±.92	2.08±1.02
동기27) 초등학교때부터 했기 때문에	2.65±1.29	2.42±1.25	2.59±1.28
동기28) 다른 학생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여	2.50±1.01	2.23±1.01	2.42±1.02
동기30) 공부에 자신이 없어서	2.73±1.15	2.55±.96	2.68±1.10
동기31) 운동이 하고 싶어서	3.65±1.01	3.45±1.09	3.60±1.03
동기32) 자신의 체력이 떨어나서	2.60±.95	2.47±1.01	2.57±.97
동기33) 자기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2.88±1.05	2.84±1.13	2.87±1.07
동기34)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하기 위하여	2.84±1.03	3.03±1.12	2.89±1.06
동기35) 힘을 기르기 위하여	3.00±1.12	2.69±1.07	2.92±1.12
동기36)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3.66±1.06	3.44±1.14	3.60±1.09
동기38) 특기/재능을 살리기 위하여	3.45±1.09	3.27±1.06	3.40±1.08
동기39) 선수들의 유니폼이 멋있어서	2.19±.98	1.94±.85	2.12±.95
동기40) 근성과 끈기를 기르기 위하여	3.34±1.08	3.05±1.09	3.26±1.09
동기41) 체력을 기르려고	3.22±1.11	2.98±1.11	3.16±1.11
동기42) 특기종목을 갖기 위하여	3.05±1.06	3.04±1.11	3.04±1.07
동기43) 선생님(코치, 감독)이 권해서	2.30±1.14	2.46±1.26	2.35±1.18
동기44)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2.58±.97	2.27±.90	2.50±.96
동기45) 성적이 떨어져서	2.35±2.02	2.22±.91	2.32±.99
동기46) 상을 타기 위하여	2.54±1.03	2.29±.98	2.47±1.02
동기47) 메스컵을 타는 선수가 되기 위하여	2.51±1.04	2.16±1.03	2.41±1.05
동기48) T.V 등의 영향을 받아서	2.21±.98	1.89±.86	2.12±.96
동기49)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하여	3.49±1.26	3.10±1.22	3.38±1.26
동기 5) 운동선수가 멋져보여서	2.63±1.14	2.66±1.14	2.64±1.14
동기 7) 유명해 지려고	2.52±1.15	2.10±1.11	2.40±1.15
동기 8)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	2.45±1.15	2.32±1.08	2.42±1.13
동기 9) 학비를 면제받기 위하여	2.00±.97	2.04±.97	2.01±.97
동기19) 승리의 기쁨 때문에	3.32±1.15	3.06±1.18	3.25±1.16

2. 스포츠 참여동기의 요인구조 분석결과

요인 분석을 적용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Bartlett의 단위 행렬검정과 K. M. O.(Kaiser Meyer Okl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표본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참여동기 50문항에 대한 단위 행렬검정결과 P값이 .000으로서 유의수준 .01에서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었으며 전자료의 표본 적합도 값도 .918로서 요인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요인분석은 탐사의 목적(exploratory purpose)에 있었으므로 요인의 수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았으며 고유치(eigenvalue)가 최소한 1보다 커야 한다는 Kaiser (1958)의 기준에 따라 1.0이상인 요인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이용하여 최초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1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한 요인을 구성해야 할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요인이 2개가 나타났고 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요인별로 신뢰계수 Alpha의 값을 구하여 요인의 항목들 중 신뢰계수가 낮은 변수를 제거시키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그런 후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 직각 회전법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한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과 문항간의 상관 높이기 위하여 문항의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s)가 .40이상인 문항만을 추출하였고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6개 요인에 포함된 항목들은 42개 문항이었다. 6가지의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51%를 설명하였다.

〈표-4〉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6개의 요인들의 Varimax 회전된 요인 행렬 표를 나타낸다. 요인1은 성취동기,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도구적 목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유명/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하여, 다른 학생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장래의 희망이므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T, V등의 영향을 받아서,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승리의 기쁨, 상을 타기 위하여 등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은 "성취/지위" 동기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변량의 24.5%를 설명하고 있으며 아이젠 값(eigenvalue)이 10.15로서 총 분산 중 최대 부분을 나타내는 변인들의 선형조합이다. 요인2는 체력/건강요인으로서, 체력을 기르거나, 건강을 유지하려고, 힘을 기르고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근성과 끈기를 기르거나 집중력을 기르려고, 특기종목 또는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하고싶어서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젠 값이 3.76이고 전체 변량의 8.98%를 점유하고 있다. 요인3은 재미/즐거움으로서 "운동이하고 싶어서",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공부보다 운동이 좋아서", "적성이 맞아서", "강제로 시켜서", "재미가 있어서"등 6문항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얻는 "희열추구"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은 전체변량의 7.28%를 설명하였고 아이젠 값은 3.05로 나타났다. 요인4는 학업부진/특혜로서 "공부에 자신이 없어서", "수업을 적게 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서", "학비면제를 받기 위하여",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등으로서 수업과 성적 그리고 장학금 및 진학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은 아이젠 값이 1.57이고 전체변량의 3.75%를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5는 "호기심 때문에", "취미생활을 위하여", "운동기구나 장비가 좋아서", "유니폼이 멋져서", "운동선수가 멋져 보여서"등으로 구성되었고 "멋"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에는 전체변량의 3.50%를 설명하고 있으며 아이젠 값은 1.47로 나타났다. 요인6은 유능성 지각으로서 "선생님 (코치, 감독)이 권해서", "자신의 체력이 뛰어나서", "소질이 있어서", "키가 크기 때문에", "다른 운동을 하다가 이 운동으로 전환"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변량이 3.32%를 설명하고 있으며 아이젠 값은 1.39이다.

한편 참여동기 요인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가 〈표-5〉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모든 요인들에 대하여 개별항목-전체점수상관계수(item-total correletion coefficients)를 구하여 문항의 동질성정도를 알아보았다.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든 항목들의 합과 개별항목들 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대부분 양호하였기 때문에 각 요인들 내의 문항동질성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항목들이 서로 효과

<표-4> 스포츠 참여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 적재치						h ²
	성취/지위	체력/건강	재미/즐거움	학업부진/특혜	멋	유능성지각	
동기7	.780	5.488E-02	9.895E-02	.106	9.494E-02	-6.552E-02	.646
동기47	.743	.107	7.605E-02	.178	8.821E-02	7.140E-02	.615
동기24	.723	.132	.312	9.593E-02	-8.715E-03	5.036E-02	.650
동기49	.621	.175	.452	4.937E-02	-.140	-3.593E-02	.644
동기25	.580	7.571E-02	.432	6.229E-02	-.126	.103	.559
동기18	.562	-1.721E-02	1.861E-02	.264	2.165E-02	7.082E-02	.391
동기48	.546	.105	3.656E-02	.125	.298	6.740E-03	.415
동기44	.545	.145	.137	7.372E-02	9.542E-02	.193	.388
동기28	.543	.249	3.798E-02	.159	.206	.123	.440
동기20	.502	.385	.288	-1.925E-02	8.198E-02	.213	.536
동기19	.499	.347	.242	-5.099E-02	8.546E-02	9.359E-02	.446
동기46	.473	.219	-4.220E-02	.250	.197	.122	.390
동기41	5.272E-02	.830	8.387E-02	5.504E-02	2.804E-02	1.460E-02	.702
동기35	.170	.767	1.420E-03	.104	.145	3.034E-02	.650
동기33	6.317E-02	.742	2.084E-02	.117	8.443E-02	8.961E-02	.584
동기38	.148	.742	.144	3.017E-02	3.748E-02	7.211E-03	.595
동기40	.138	.740	.237	1.367E-02	3.322E-02	4.090E-02	.625
동기14	.175	.687	.238	1.498E-03	.175	-2.548E-02	.590
동기34	.109	.753	8.907E-02	2.422E-02	.333	-1.264E-02	.460
동기42	.260	.542	.253	2.449E-02	.138	.134	.464
동기31	.133	.268	.741	-4.351E-02	-4.697E-03	2.105E-02	.642
동기36	.213	.340	.699	-.125	1.485E-02	5.584E-02	.669
동기21	.137	6.064E-02	.669	.426	5.054E-02	.135	.672
동기2	.327	.101	.618	-.171	-3.235E-02	.287	.612
동기10	-5.807E-02	-.129	-.578	.147	7.711E-02	.386	.523
동기1	.241	.155	.575	-.151	.211	-3.573E-02	.481
동기30	9.131E-02	-6.351E-03	.139	.770	7.950E-02	1.901E-02	.627
동기26	.142	-1.362E-02	-8.783E-02	.652	.179	.116	.498
동기45	.155	.113	-3.091E-02	.649	.120	.124	.488
동기9	.165	7.259E-02	-.216	.547	8.228E-02	8.558E-03	.385
동기8	.344	.170	-.151	.527	-2.634E-02	7.796E-02	.454
동기23	4.184E-02	.120	4.185E-02	9.519E-02	.634	.124	.444
동기16	-8.826E-02	.322	.144	-2.039E-02	.560	9.548E-02	.456
동기15	.229	.233	-5.435E-02	.135	.553	2.825E-02	.435
동기39	.333	.132	-1.856E-02	.118	.514	6.952E-03	.408
동기5	.341	.6.000E-02	.217	3.364E-02	.484	-.114	.415
동기17	-4.905E-02	-3.082E-02	-.224	.102	.393	2.768E-02	.219
동기43	.156	-1.03	-.341	7.802E-03	.105	.551	.466
동기32	.215	.345	.220	3.370E-02	8.126E-02	.544	.517
동기12	.346	.142	.367	-.178	-2.430E-02	.499	.556
동기22	6.735E-02	6.301E-02	3.176E-02	.200	.276	.484	.360
동기11	-8.827E-03	-2.350E-02	4.267E-02	.263	-9.305E-02	.473	.304
교유치	10.152	3.773	3.056	1.577	1.469	1.393	
설명분산 %	24.172	8.984	7.277	3.755	3.497	3.318	
누적분산 %	24.472	33.156	40.433	44.188	47.685	51.002	

<표-5> 스포츠참여동기 요인들의 신뢰도 검정결과

하위요인/항목	Item-Total Correlation	Cnobach's Alpha
성취/지위(요인1)		.89
7) 유명해 지려고	.6736	
47) 마스크를 타는 선수가 되기 위하여	.7013	
24) 유명운동선수가 되기 위하여	.7343	
49)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하여	.6497	
25) 장래의 희망이므로	.5981	
48) T.V 등의 영향을 받아서	.5080	
18)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4635	
28) 다른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5501	
44)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5430	
20)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6011	
19) 승리의 기쁨 때문에	.5511	
46) 상을 타기 위하여	.4782	
체력/건강(요인2)		.89
41) 체력을 기르려고	.7470	
35) 힘을 기르기 위하여	.7125	
38) 건강해 지려고	.6819	
40) 근성과 끈기를 기르기 위하여	.6995	
33) 자기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6458	
14) 집중력을 기르기 위하여	.6740	
34)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5525	
42) 특기종목을 갖기 위하여	.5648	
재미/즐거움(요인3)		.60
31) 운동이 하고 싶어서	.6010	
36)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6361	
21) 공부보다 운동이 좋아서	.4685	
2) 적성이 맞아서	.5713	
1) 재미가 있어서	.5091	
10) 강제로 시켜서(역)	-.4291	
학업부진/특혜(요인4)		.74
30) 공부에 자신이 없어서	.5076	
26) 수업을 적게 하기 때문에	.5184	
45) 성적이 떨어져서	.5016	
9) 학비를 면제받기 위하여	.4658	
8)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	.4882	
멋(요인5)		.62
23) 호기심 때문에	.3896	
15) 운동기구나 운동장비가 좋아서	.4575	
16) 취미생활을 위하여	.3598	
39) 선수들의 유니폼이 멋있어서	.4137	
5) 운동선수가 멋져 보여서	.3282	
17) 유명해 지려고	.1627	
유능성 지각(요인6)		.50
32) 자신의 체력이 뛰어나서	.3734	
22) 키가 크기 때문에	.2900	
12) 소질이 있어서	.2632	
43) 선생님(코치·감독)이 권해서	.1876	
11) 다른 운동을 하다가 이 운동으로 전환	.2199	

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어서 각 요인별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을 알아보기 위하여 6개 요인에 대하여 Cronbach's Alpha값을 구한 결과, 신뢰도 계수의 범위는 .50-.89로서 요인1이 가장 높고 요인 6이 가장 낮았다. 유능성 지각요인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점은 추후에 재현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성, 시작시기, 학교 급간, 종목별에 따른 차이 검증

1) 성별에 따른 차이

〈표-6〉에서 참여동기 요인들 중 성취/지위(F(1, 660)=31.14), 요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재미/즐거움(F(1, 660)=11.67), 유능성지각(F(1, 660)=5.60), 건강/체력(F(1, 660)=4.10) 요인에서 유의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멋과 학업부진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성취/지위, 재미/즐거움, 유능성 지각, 건강/체력의 동기 때문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6〉 성별(남.여)에 따른 참여동기 분석결과

종속변인	성별		DF	F	P
	남(N=476)	여(N=186)			
유능성지각	12.37±3.01	11.75±3.13	1. 660	5.60	.018
성취/지위	33.28±8.56	29.10±8.96	1. 660	31.14	.000
멋	14.81±3.71	14.23±4.03	1. 660	3.14	.077
재미/즐거움	21.78±4.48	20.46±4.47	1. 660	11.67	.011
학업부진/특혜	11.63±3.72	11.18±3.39	1. 660	2.00	.159
건강/체력	24.83±6.43	23.69±6.68	1. 660	4.10	.043

2) 시작시기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

〈표-7〉은 운동경력 (운동의 시작시기)에 따라 참여동기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때, 중학교 이후로 구분하여 6가지 종속변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표-7〉에서 보면 참여동기 요인들 중 학업부진(F(1, 660)=8.44), 재미/즐거움(F(1, 660)=5.94)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체력, 재미/즐거움, 성취/지위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7〉 운동시작시기에 따른 참여동기 분석결과

종속변인	스포츠 참여 시작시기		DF	F	P
	초등학교 (N=380)	중학교이후 (N=282)			
유능성지각	12.08±3.07	12.35±3.04	1. 660	1.35	.247
성취/지위	32.63±9.05	31.40±8.59	1. 660	3.09	.079
멋	14.46±3.80	14.91±3.81	1. 660	2.33	.127
재미/즐거움	21.78±4.59	20.92±4.36	1. 660	5.94	.015
학업부진/특혜	11.15±3.64	11.98±3.57	1. 660	8.44	.004
건강/체력	24.46±6.79	24.57±6.14	1. 660	.04	.835

제주도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참여 동기에 대한 분석 (진 윤 성·김 승 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청소년 선수보다 중학교 이후에 운동에 참여한 선수들이 학업부진/특혜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선수들은 재미/즐거움의 동기 때문에 운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3) 학교 급간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

〈표-8〉은 학교별에 따라 참여동기 요인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표-8〉에서 보면 학업부진 ($F(1, 660) = 41.99$), 재미($F(1, 660) = 28.45$), 건강/체력($F(1, 660) = 7.44$), 멋($F(1, 660) = 6.51$)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능성지각, 성취/지위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별로 보았을 때, 학업부진의 요인은 고등학교에서, 재미요인은 중학교에서 건강/체력 요인은 중학교에서, 멋의 요인은 고등학교에서가 참여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표-8〉 학교별(중.고)에 따른 참여동기 분석결과

종속변인	학 교 별		DF	F	P
	중학교 (N=327)	고등학교 (N=335)			
유능성지각	12.17±3.06	12.22±3.05	1, 660	.04	.844
성취/지위	32.05±9.00	32.17±8.76	1, 660	.03	.861
멋	14.27±3.82	15.02±3.76	1, 660	6.51	.011
재미/즐거움	22.34±4.14	20.51±4.68	1, 660	28.45	.000
학업부진/특혜	10.60±3.47	12.38±3.58	1, 660	41.99	.000
건강/체력	25.20±6.54	23.83±6.43	1, 660	7.44	.007

4) 종목별에 따른 참여동기의 차이

〈표-9〉에서 운동종목에 따른 참여동기 요인들의 차이를 분산 분석하였다.

성취지위($F(2, 659) = 23.74$), 재미($F(2, 659) = 22.74$), 유능성($F(2, 659) = 11.33$),요인에서 유의한 종목별 차이를 나타내었고 멋, 학업부진, 그리고 건강/체력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운동종목에 따른

〈표-9〉 종목별에 따른 참여동기 분석결과

종속변인	종목			DF	F	P
	개인운동 (N=233)	단체운동 (N=230)	대인운동 (N=199)			
유능성지각	12.68±3.10b	12.43±3.12b	11.36±2.75a	2, 659	11.33	.000
성취/지위	30.85±8.74a	35.33±8.66b	29.85±8.21a	2, 659	23.74	.000
멋	14.57±4.10	14.80±3.85	14.57±3.40	2, 659	.28	.760
재미/즐거움	20.77±4.34a	22.97±4.29b	20.36±4.48a	2, 659	22.74	.000
학업부진/특혜	11.65±3.70	11.37±3.49	11.47±3.74	2, 659	.35	.760
건강/체력	24.29±6.82	24.10±6.35	25.22±6.31	2, 659	1.77	.172

* a b c는 Duncan의 사후 검정 방법으로 문자가 서로 다르면 평균값이 차이가 있음

구체적인 평균치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결과 성취/지위 와 재미 요인에서는 단체종목 선수들이 개인, 대인 종목의 선수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능성 지각 요인에서는 개인 운동과 단체종목 선수들이 대인 운동선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개인운동과 단체운동선수들은 유능성 지각 동기 때문에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고 단체 운동선수들은 성취/지위와 멋의 동기 때문에 운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N. 논의

미래 스포츠의 주역인 청소년 선수들에 대한 이해는 장기적인 스포츠 진흥 전략 수립 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이다. 서구의 체계적인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아직 우리 청소년들이 스포츠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느낌 및 행동에 관한 경험적·이론적 정보가 빈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참여동기를 연구분석 하는 것이다. 스포츠 참여동기에 대한 성취/지위, 체력/건강, 재미/즐거움, 학업부진/특혜, 멋, 유능성 지각 등 6개의 참가동기의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중, 성취/지위 및 체력/건강 영역은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포츠 참가동기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미/즐거움, 체력/건강, 성취/지위 영역은 Clough(1990), Gill 등(1983), Klint, Weiss(1987), Blodkin과 Weiss(1990) 등 대부분의 서구결과에서도 중요한 동기의 차원으로 제시된 바 있어 이러한 동기는 동, 서양을 막론하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갖는 일반적인 동기로 볼 수 있다. 분명히 청소년 선수들의 운동지속이나, 중도 탈락과 같은 행동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스포츠 참여동기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의 평가에 기초를 두고 결정된다.(Gould & Petlichkoff, 1988). 이러한 득과 실이 사회 교환적 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근거 할 때 선수들의 모든 내, 외적 참여동기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가동기 유형이 성차를 분석한 결과 참가동기의 영역별로 다소의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결과만으로는 성차의 뚜렷한 경향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학생 운동선수들이 여학생 운동선수들에 비하여 참여동기에 대한 평균이 높았으며, 특히 성취/지위, 재미/즐거움, 유능성 지각, 건강/체력의 동기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참여동기는 42개의 참여동기문항에서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찾기 위하여, 호기심 때문에, 운동선수가 멋져 보여서, 선생님(코치·감독)이 권해서, 친구의 권유로, 학비를 면제받기 위하여 등이다. 성별에 따라 성취/지위 동기요인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스포츠를 통한 진학, 진로 선택, 지위상승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나라의 사회구조를 볼 때 논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취/지위 및 체력/건강과 재미/즐거움의 영역은 모든 스포츠 성과 참여시기, 학교별, 종목별에서 가장 중요한 참가동기 영역으로 지적되어져 차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요구되는 동기차원으로 고려된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서구문헌에서는 참여동기 차원으로 고려된 기술개발, 팀 지향성, 친화 등과 관련된 반응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비록 중복된 주제들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멋, 학업부진/특혜와 같이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 선수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고유 영역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차후 청소년선수들이 참가동기에 관한 연구방향의 설정이나 방법론적인 측면, 실제적인 동기유발 전략의 개발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선수들이 스포츠참가동기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요인탐색에 기초하지 않는 척도의 제작 및 사용은 연구의 타당성은 물론 왜곡된 지식을 전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외적 동기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문헌만을 기초한 내적동기 유발

방안만이 사용은 실제로 효용을 크게 격감시키게 될 것이다. 참가동기의 경력별 즉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 하는 스포츠 참여시기 차이 역시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었는데 학업부진/특혜, 재미/즐거움, 멋, 유능성지각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 문항에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성취/지위, 재미/즐거움을 높게 들고있으며 중학교 이후에 시작한 청소년운동선수들은 학업부진/특혜, 멋, 유능성지각 등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참여동기의 학교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운동선수들은 재미/즐거움, 건강/체력영역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은 학업부진/특혜, 멋 영역에서 중학교와는 달리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학업부진/특혜, 멋 영역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입시제도 및 진학상태 그리고 고등학교학생들의 실태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운동종목에 따른 참여동기 영역을 살펴보면 성취/지위, 재미/즐거움, 유능성지각, 건강/체력 등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점을 보였는데

개인운동의 경우, 유능성지각 및 학업부진/특혜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체운동의 경우, 성취/지위, 재미/즐거움, 멋 등의 영역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나 학업부진/특혜, 건강/체력 요인은 가장 낮게 평균하고 있다.

대인운동의 경우에는 건강/체력 영역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유능성지각, 성취/지위, 재미/즐거움 영역의 순서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스포츠 참여동기의 차이이다.

스포츠 참여동기는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며 성, 경력, 학교별, 종목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스포츠 참가동기요인의 대표적 모형으로 되어있는 Gill 등(1983)의 연구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간 비교 문화적 연구결과와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것을 찾고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며 미래의 연구들이 보다 심리측정적 문제나 비교 문화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지도를 위한 스포츠지도자의 일차적인 출발점은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동기와 욕구를 파악하여 이러한 동기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다. 만약 이러한 욕구나 동기가 충족되지 못 할 때 우리의 청소년선수들은 스포츠활동에 비능률적이거나 더 나아가 스포츠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이해는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동기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V. 결 론

본 연구는 표본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제주도 중 고등학교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참여동기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 운동선수 662명이었으며 측정도구는 예비조사와 선행문헌(성창훈, 김병준, 1996, 양명환, 1994)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83명의 제출한 동기요인들을 귀납적 내용분석절차를 거쳐 상위의 일반적인 주제들로 범주화된 85개의 원자료를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직각회전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치 1.0이상의 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과 문항간의 상관을 높이기 위해 문항의 요인 적재치가 .40 이상인 문항만을 추출하였고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6개 요인에 포함된 항목들은 42문항이었으며 이 6가지의 요인들은 전체변량의 51%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제주도 중·고등학교 운동 선수들의 스포츠 참여 동기

스포츠 참여 동기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위를 보면 운동이 하고싶어서, 공부보다 운동이 좋아서, 특기 및 재능을 살리기 위하여,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하여, 근성과 끈기를 기르기 위하여, 적성이 맞아서, 승리의 기쁨 때문에, 장래의 희망이므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스포츠 참여동기의 요인구성

스포츠 참여동기는 성취/지위, 체력/건강, 재미/즐거움, 학업부진/특혜, 멋, 유능성 지각등 6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3. 스포츠 참여동기의 성별, 운동시작시기, 학교 급간, 종목별에 따른 차이

1)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를 분석한 결과 성취/지위, 재미/즐거움, 유능성지각, 건강/체력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운동시작 시기에 따른 참여동기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운동선수들은 재미/즐거움요인이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이후에 시작한 운동선수들은 학업 부진/특혜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3) 학교 급별에 따른 참여동기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에서는 재미/즐거움, 체력/건강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업부진/특혜, 멋 등의 요인에서 중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종목별에 따른 참여동기 분석결과 유능성 지각에서는 개인 운동 및 단체운동선수들이 높게 나타났고 성취/지위요인에서는 단체운동이, 재미/즐거움 요인에서는 단체운동선수들이 개인 및 대인운동 선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참고 문헌

- 김충식(1996). 스포츠참여동기에 대한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범(1998). 볼링 동호인이 사회 연구 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의춘(1999). 성인 수영 참가자의 참여동기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서정환(1981). 여대생의 스포츠 참가동기에 관한 심리적 요인분석 한국체육학회.
- 서정환(1982). 여대생의 스포츠 참가 동기에 관한 심리적 요인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14-20.
- 성창훈, 김병준(1996). 청소년 운동 선수의 스포츠 참여 동기 심층 분석. 한국스포츠 학회지 제7권 1호, 153-171.
- 양명환(1994). 대학생들이 신체활동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5권 2호, 107-122.
- 양재근(1992). 스포츠 참여화 스포츠 사회와의 결정요인.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지 3권 2호, 39-48.
- 유인석(1990). 성인의 운동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재완(1999).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비행 한국 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현(1999). 성인 남, 여의 스포츠 참여동기 유형 한국체육교육 학회지 제4권1호, 115-130.
- 임변장(1986). 청소년 비행과 스포츠, 한국 사회 체육 진흥회.
- _____ (1995). 스포츠 사회학 개론, 서울 : 동화 문화사.
- 장철준(1996). 성, 연령, 생활수준이 청소년의 운동 욕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정영린(1987). 스포츠 참여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상한(1996). 스포츠 참여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iddle, S. J. (1992). Sport and exercise motivation : A brief review of antecedent factors and psychological outcomes of participation *Physical Education Review*.15. 98-100.
- Biddle, S. J. & Fox, K. R. (1998). The child's perspective in physical education : 11children's participation motives. *British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19. 79-82.
- Brodkin, P. & Weiss, M. R.(1990).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competitive swimming.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2. 248-263.
- Buonamano, R. Cei, A. & Mussino, A.(1993). Participation motivation in Italian youth sport. In S. Serpa, J. Alves, V. Ferreira, & Paula-Brito (Eds.). *Actas/Proceedings of the 8th World Congress of Sport Psvchology (Vol 1. pp. 634-642)*. Lisbon.
- Derman, R. B. & Wood, N. L.(1976). Analysis of incentive motivation in young Canadian athletes. *Canadian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 1. 169-176.
- Gill, D. L. Gross, J. B. & Huddleston, S.(1983). Participation motivation in youth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4. 1-14.
- Gould, D. feltz, D. & Weiss, M. & (1985). Motives for participation in competitive youth swimm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6. 126-140.
- Gould, D. & Horn, T.(1984). Participation motivation in young athletes. In J. M. Silva III & R. S. Weinberg(Eds.).*Psychological foundation of sport(pp. 359-370)*. Champaign, IL : Human Kinetics.
- Gould, D. Jackson, S. & Finch, L. (1993). Sources of stress in national championship figure skaters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5. 134-159.
- Harahousou, Y. S. & Kabitisis, C. N. (1994). Important reasons that Greek women into participation in physical education. In F. I. Bell & G. H. van Gyn(Eds). *Access to Active Living-Proceedings of the 10 Commonwealth and International Scientific Congress*. Victoria, B. C.
- Jackson, S. A. (1992). Athletes in flow :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flow state figure skaters. *journal of Appnied Sport Psychology*. 4(2), 161-180.
- Klint, K. A. & Weiss, M. R. (1987). Perceived competemce and motives for participation in youth sport : A test of Harter's competence motivation theory. *journal of Sport Psychology*. 9. 55-65.
- Lindner, K. J. & Speak, M. A. (1995). Frequency of and reasons for sport participation by students entering university. Paper presented at the 2nd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Asian-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Sport Psychology, Hong Kong.
- Longhurst, K. J. & Spink (1987). Participation motivation of Australian children involved in organized

- sport. Canadian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 12. 24-30.
- Martens. R.(1987). Knowledge problems in Physical education. In R. J. Park & H. M. Eckert (Eds.). The Academic Papers. New Morris. T. Clayton. H. Power. H. & Han. (1995). Gender and motives for participation in sport and exercise. Proceedings of 11th European Congress of Sport Psychology. Brussels. Possibilities. New Paradigm.(No. 24. pp. 93-99).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Robertson. I. (1981). Children's perceived satisfactions and stresses in sport.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Council of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Boston.
- Sapp. M. & Haubenstricker. J. (1978). Motivation for joining and reasons for not continuing in youth sport programs in Michigan. Paper presented at A A H P.